

교직원 등 모교방문 11일 다양한 행사 예정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불교학)가 주최하는 '동문교직원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중강당과 상록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일정은 1부 '수행 평가의 이해 및 사례'라는 주제의 교육특강과 본교발전 및 인사제도에 대한 소개, 2부 교직원 등 문 소개는 중강당에서, 3부 모교 방문 기념식 및 만찬은 상록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교사동문과 △교직원 재교육 △우수학생유치 △교사동문간의 유대형성 등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교직원 등 문들의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SRC·ERC 개소식 과기부장관도 참석

본교 이공계분야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SRC(기초과학연구센터)·ERC(공학연구센터)개소식이 오는 8일 교무회의실과 정보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본교 오원익이사장, 송석구총장, 최순열연구처장, 강태원소장, 이진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무회의실에서 개소식이 이어 정보문화관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서정욱 과기기술부장관이 참석해 개소식전 송석구총장과 센터운영에 대한 환담도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승찬 동문 컴퓨터 기증 창업보육센터 기자재로



김승찬 회장

본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기업인 김승찬 회장(전산, 72학번)이 멀티미디어 문화·예술 분야 창업보육센터의 기자재용 컴퓨터 50대(약 1억 5천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김승찬 회장은 현재 증권 벤처기업인 (주)경기 시스템 대표로서 양재·포이 벤처기업인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모교발전에 대한 기증자의 관심이 대단하다"며 "다른 동문도 이를 본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K21사업 '예상된 반발' 거셀 듯

특정대학 위주로 선정... 본교는 화학등 4개분야에 25억원 배정받아



지난달 28일 서울대에서 열린 'BK21'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대학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교육부의 BK21사업 선정 결과가 지난 8월 31일 발표되었다. 지난 6월부터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지역대학을 특성화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양성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은 BK21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대학은 "몇몇 특정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표결과 서울대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대우를 받았고, 본교는 화학 등 4개 분야에 25억원이 배정받았다.

그러나 고려대 등 일부 사립대학들이 선정결과에 불복,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등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과대의 한 교수는 대학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사업에 대해 "재정기반이 약한 대부분의 사립대학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선진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은 "몇몇대학에 대한 기존의 재정지원을 강화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 이번 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존폐문제로까지 연결되는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문앞 일방통행 사실상 확정

중부경찰서 심의만 남아... "조속한 공사 이뤄져야"

동국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아터잡기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됐던 '후문앞 일방통행' 관련 공사가 이르러 9월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찬정·수교4, 이하 학복위)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생협 학생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시작으로 지난 학기 4월부터 교수,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과 후문앞 인근 상가지역의 상인들을 방면에 일방통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 학복위는 지난 5월 18일 중구청 교통행정과로부터 '사업추진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고, 방죽에는 서울시, 중부경찰서, 중구청 등의 관계기관 민원접수와 삼성제일병원측과의 논의를 거친 결과 '녹두4거리'에서 본교 후문쪽 으로의 일방통행 방향을 결정지었다.

중구청 교통행정과의 김종운씨는 "공사관련 예산 확보와 공사

계획에 대한 입안까지 마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안까지 잡힌 만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일방통행 문제를 조속히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방은영(산방4) 학복위 사무국장은 "최종적으로 중부경찰서의 심의가 오는 15일안에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10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면서도 "제일병원측의 '주차장 확장공사 완료후'라는 조건 때문에 심의가 부결되면 공



교통혼잡과 보행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통행은 빠른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사가 내년부터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해 일방통행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결국 지난 95년도부터 제기됐던 일방통행문제는 중부경찰서의 최종심의를 남겨둔 상태이다. 그

러모 제일병원이 심의과정에 제사한 조건때문에 수년간 지속됐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되지 않길 기대한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교수회, 다음주중 차기 회장단 구성

"보다 강력한 교수들의 구심점 될 것"

지난 5월 6대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회장단이 사퇴한 후, 서울캠 심익성(행정학)교수와 경주캠의 함경수(컴퓨터공학)교수의 공동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던 교수회가 조만간 정식 회장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학기 총장후보선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정지되었던 교수회는 체제 정비에 착수해 △교과개혁 △교수연봉제 △교수 후생복지 문제 등 시급한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차기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서울·경주 합동 대의원총회를 서울캠 교무회의실에서 개최해 차기 회장

단 구성을 비롯한 교수회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서울캠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경주캠에서도 그 주에 정기총회를 갖고서 차기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교수회장단 구성과 관련해 심익성교수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교수회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교수회는 보다 강력한 본교 교수님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두뇌한국 21사업 선정 결과 및 사립학교법 통과와 관련하여 심익성교수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재개정 운동과 김덕중 장관을 비롯한 교육7조에 대한 규탄집회를 교육계 혁신시민연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라며 "두뇌한국 21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하며, 차기 회장단 구성전까지 미결정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 본교 교수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원 인턴 추가모집 오는 15일까지 접수

취업지원팀(팀장=김병수)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2차 정부지원 인턴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2차 정부지원 인턴 모집사업의 연장으로 학부와 대학원 졸업생 또는 99학년도 8월 졸업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정부지원 실업대책 수혜자와 정부인턴 연수중이거나 중도탈락자는 제외된다. 취업지원팀으로 신청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대외협력처

- 대학문화 시리즈 7편
- 90년대 대 학문회는 과연 대중문화와 차별을 갖는가. 본사 문화면에서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라는 주제로 총3회 기획중 '대학문화의 모습'을 첫번째로 다룬다.
- 진보정당 창당의 의미 4편
- 사립학교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5편
- 연재소설 "계륜의 필름" 6편

보리수

교사로서의 부처님

박 경 준(불교대 불교학과)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는 불교는 개인의 자유와 그 주체적 인격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한다. 그것은 부처님의 윤회론으로 잘 알려진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법할 때에 '나만 믿고 따라 오나라'는 식의 가르침은 배척 않는다. 늘상 '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깊이 사유할 것'을 강조하면서 제자들 스스로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신다. 한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제자 아난이 자신의 간략한 가르침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 것을 칭찬하고 계시기도 한다. 나아가 '내 제자들은 심지어 여래까지도 관찰하여, 여래가 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성취하지 못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김승찬이까지 하 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의 자유와 인격을 얼마만큼 존중했었나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모습에서 어떠한 권위주의나 교조주의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느날 아난은 여러 밤을 돌아다니면서 눈만 아나를 존자의 옷을 짓기 위해 비구 스님들에게 동참을 부탁했다. 이를 본 부처님은 "아난아, 왜 너는 나에게만 아나를 위해 옷 짓기를 청하지 않는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는 8백명의 비구와 함께 아나를의 옷을 손수 지으셨다. 참으로 따뜻하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부처님은 어느 해 여름 안거를 마치고 자자회(自恣會)를 하는 법석에서 여러 제자들을 향해 "그대들은 그동안 나의 행동이나 말이 나 생각 중에서 혹시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가?"하고 솔선수법하여 묻기도 한다. 이렇듯 부처님은 모든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늘 제자들과 함께 하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이러한 부처님을 더욱 존경하고 따랐던 것이다. 우리의 가을 교정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를 닮은 동국인들로 넘쳐나길 기대해 본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 수습기자 모집안내

- 모집인원: 서울 캠퍼스 0명
-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취재·시진·면회 기자
- 채용서류: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 원서접수: 9월 16일(목) 오후 5시까지
- 일시제출처: 본사 총무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9월 16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됨

학내 공간 활용 줄다리기 '팽팽'

다향관 등 용도 서서히 윤곽... '복지'와 '효율' 고려해야

최근 다향관을 비롯한 명진관, 동극관, 정보문화관 등의 공간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상반기부터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와 학교당국간의 논의가 꾸준히 진행됐지만 서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학교당국은 다향관과 그 외의 공간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한 상황이다. 다향관의 경우 1층은 생활복지공간으로, 2층은 SRC, 3층은 정보관리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총학은 다향관 3층을 모두 복지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러 개의 연구센터가 신설되는 객관적인 공간 상황을 고려해 휴식공간(보리수)을 1

층으로 옮기며 60평의 복지공간을 3층에 확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다향관 3층의 경우 정보관리실과 통신실 등을 이미 배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총학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다향관 공간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정보문화관 지하1층은 ERC로,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경상대의 위치에 신설되며, 경상대는 언어연구교육원 자리에, 언어연구교육원은 정보관리실 자리로 이동한다.

또한 용 상반기에 학교당국은 문과대가 학생회실로 이용했던 강의실로 전환하고 명진가든 공간으로 학생회실을 옮길것을 제안했으나 명진가든 공간에 문과대 컴퓨터

실과 이과대 자연과학부 학생회실을 배치할 것을 학생들이 요구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학교당국은 방학중에 명진관 A101 강의실에 중문과 어학실습실을 설치했으며 앞으로 문과대의 컴퓨터실은 이병주, 남도영 명예교수의 연구실을 개조해 명진관 4층에 만들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는 공간 재배치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으로 학생들의 복지공간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활복지공간으로 정해진 다향관 1층은 기존의 매장과 휴게실의 기능이 더해진 것으로, 외부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도 더이상의 복지공간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의 강의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지난 2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생활학생대의원들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진행될 공간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복지향상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2학기 우수강의계획서 시상

김용표 교수 등 모두 4명 선정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은 99학년도 2학기 우수강의계획서를 선정해 지난 2일 총장실에서 해당 교직원에게 증서와 지원금 50만원씩을 전달했다.

우수강의계획서에 선정된 강좌는 △인문 분야-김용표(불교학)교수의 '종교사' △사회과학 분야-이영민(경영학)교수의 '고용관계론' △자연·예체능 분야-박기덕(수학)교수의 '위상수학' △공학 분야-이영규(컴퓨터공학)교수의 '컴퓨터시스템응용' 등이다.

이창배 전집 3권 출간

내년까지 12권 전집 발간 예정

지난 8월 본교 출판부(부장=최창선)는 본교 명예교수인 이창배(영문학) 박사의 전집 중 3권을 출간했다.

지난해 5월 '영미시 걸작선'과 '미국 초절주의자 3인선' 발간에 이어 나오는 이번 책은 'T.S. 엘리엇 문학비평' '포스트모던시대의 문학의 위기' '광안의 변' 등 모두 3권이다. 'T.S. 엘리엇 문학비평'에는 엘리엇비평의 주요작품 20편과 그 외 현대영미 비평이 망라되어 있고, '포스트모던시대의 문학의 위기'에는 저자의 미발표 논문 25편이 수록, '광안의 변'에는 국내 언론에 실렸던 저자의 글들 가운데 수필문학으로서의 문학성이 높은 글들과 영국의 고전수필들이 부록으로 실렸다. 출판부는 앞으로 연말까지 2권, 내년도에 5권을 추가 간행하여 모두 12권의 전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원충·예대, 공동 개강 사업 진행

'광장이름짓기'와 '영화제' 등 개최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중·입학박사과정 3학기)와 예술대 학생회(회장=이재연·미술3)는 개강사업으로 광장이름짓기와 영화제 등을 공동 진행한다.

학술관과 문화관 사이에 있는 광장에 이름을 짓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장이름짓기는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예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 중이며, 행사 마지막날인 9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화제는 '형과 아우가 보는 광장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내일(7일)부터 3일동안 광장에서 오후 7시 30분에 '페리스의 해방', '트로미오와 줄리엣', '헤이세이 너구리 대작전' 등이 상영된다.

총학, '개강맞이 광장' 개최

'자유발언' 등 마련 학생 참여 유도

오는 7일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는 불상 앞에서 '민족통국 개강맞이 광장'을 개최한다.

지난 여름방학중 활동보고와 앞으로 진행될 재단이사 선출 문제, 모집단위 광역화문제 등 학자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될 이번 행사에서는 '자유발언' 등이 마련돼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BK21 인문사회분야 사업 연기

개정내용 역시 '나뉘먹기'로 전락

대부분의 대학은 지원도 힘들어

"이것을 바로 옮겨 가져 먹기라고 하는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수회관에서 만난 한 교수가 '사건'임을 전제로 밝힌 평가이다. 소위 말하는 몇몇 '일류대학'에 치우치고 있는 정부의 지원과 현실적으로 인문사회분야 선정 사업에 '지원'조차 하기 힘든 대다수의 대학이 바로 이런 심정일것이라면서 말이다.

BK21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등이 이미 발표된 4개분야를 제외한 인문사회분야 선정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문사회분야는 계획대로 다른분야의 사업들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교수들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9월중에 개정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건국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교육부가 선정 한 5개분야에서 인문사회 전문분야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단 규모는 전임교수 20인 이상(1인)에서 전임교수 3인 이상(2인)으로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가능한 한 교수들의 참여폭을 넓혀 선정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 역시 '각 대학의 나뉘먹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와 비교했을 때 지원액수가 상당히 적어 인문사회분야의 출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본교의 경우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학'에 중점을 두고 인문사회분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준비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BK21사업의 4개분야의 선정대학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접지(?)해 놓은 몇몇 '특정대학'에 들지 못하는 '그저 그런대학'들은 지난 1학기에 이어 이번 2학기도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인 듯 하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사과대 강의백서 제작·발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주체적 참여위해

사과대 학생회(회장=이정진·행정3)는 지난 1학기 강의백서를 제작, 개강과 함께 발표했다.

이번 강의백서는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사과대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해 제작했으며 강의의 전반적 평가, 강의자체에 대한 평가, 학생과 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다루고 있다.

이번 강의백서는 단순히 강좌에 대한 호응도 조사나 교수평가가 아

닌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개설을 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이정진 사과대 학생회장은 "학생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서 강의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며 "다음 강의백서는 보다 많은 과목을 다루어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공사중... 여름방학중 시작한 대운동장에서 상록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공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주고있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창업연구회, 우수동아리선정 정부로부터 5백50만원 지원

'동국대학교 창업연구회 FRONTIER(회장=박병록·전산통계학4)가 서울·경기 4개 대학의 창업연구회 중에서 우수동아리로 선정돼,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백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 결성된 후 현재 박준업(산업공학)교수의 지도아래 20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FRONTIER는 지난 제3회 대학생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예비창업자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교수동정

▲송석규(철학·총장)=지난달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종교분과 위원장에 위촉.

▲이상현(경찰행정학)=지난달 2일 경찰위원회 경찰위원으로 임명.

▲한태식(선학)= '백용성스님과 불교계의 노동문제'라는 주제로 오는 9일 본교 덕양세미나실에서 '대각회 창립3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백경남(정치외교학)=지난달 19일 제3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에 임명.

한가위 귀향사업

1. 접수장소·접수일자·접수시간

접수장소	중앙도서관	동국관 4층 로비 (아간직접 학우들을 위해)
접수일자	9월 6일(월) ~ 9월 10일(금)	9월 6일(월) ~ 9월 8일(수)
접수시간	이른 11시 ~ 늦은 4시	늦은 5시 30분 ~ 늦은 7시

- 출발시간 : 9월 22일 오전 10시(정시 출발)
- 출발장소 : 대운동장
- 귀향차 가격 : 5,000원(기념품, 도시락 제공)
- 노선

- | | |
|-----------------|---------------------------|
| 1. 충주 - 문경 - 상주 | 2. 청주 - 대전 - 노산 |
| 3. 익산 - 군산 | 4. 서산 - 예산 - 홍성 - 보령 - 서천 |
| 5. 전주 - 정읍 | 6. 전주 - 고창 - 남원 |
| 7. 마산직통 | 8. 창원 - 진해 |
| 9. 부산직통 | 10. 밀양 - 김해 - 부산 |
| 11. 직주직통 | 12. 진주 - 사천 |
| 13. 울산직통 | 14. 제천 - 영주 - 안동 |
| 15. 광주직통 | 16. 영산포 - 목포 |
| 17. 순천 - 여수 | 18. 순천 - 벌교 - 고흥 |
| 19. 대구직통 | 20. 김천 - 구미 - 대구 |
| 21. 연천 - 포항 | 22. 원주 - 속초 - 강릉 |
| 23. 경주 - 울산 | |

- * 본 노선은 98년도 노선으로 사정에 의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 * 귀향차는 화석제이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귀향차를 임의대로 옮겨서 탈실 수 없습니다.
- * 귀향차는 정시에 출발하고 출발후에는 환불이 안됩니다.
- * 귀향차 환불은 9월 6일 ~ 10일까지입니다.
- ▶ 귀향차의 귀향대장을 모집합니다. 귀향대장이란 귀향차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인원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소정의 전화카드를 드림터 돌아온 후 도시락 품권으로 5,000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귀향대장을 하실 분은 귀향차 접수시에 접수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 문의 : 학생복지위원회(다향관 지하) 2260-3681 / 2276-1950

서울캠 열다섯번째 학생복지위원회

가을특강

- 접수기간 : 9월 6일(월) ~ 9월 17일(금)
- 강의기간 : 9월 13일(월) ~ 11월 5일(금) - 8주 (단, 주재현 JFKN은 9월 1일 ~ 10월 31일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공개강의도 9월 1일 ~ 9월 9일까지입니다. 또 월 ~ 목요일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 공개강의 : 9월 13일(월) ~ 9월 15일(수)
- 강의시간 :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7시 ~ 오전 8시 50분
- 접수장소 : 구내서점(다향관 지하)
- 접수비 : 8주에 20,000원 동일(단, 주재현 JFKN은 한 달에 45,000원이며(교재포함) 9월/10월 1일에 개강합니다.)

- 강좌명 :
 - TOEIC : 안박사 TOEIC, 가이드 라인 TOEIC
 - TOEFL : 신경향 아카데미 TOEFL, 신경향 시사 TOEFL
 - LISTENING : CULT ENGLISH, 솔솔 Listening, 주재현 JFKN
- 강의실

강의실	M204	M205	M304	M305
강의명	안박사 토익	가이드라인 토익	솔솔 한자	신경향 토플
강의실	M306	M307	M401	L501
강의명	솔솔 LISTENING	CULT ENGLISH	주재현 JFKN	아카데미 토플

- * 각 강의의 아르바이트·모니터 도우미는 9월 6일부터 선착순 선발합니다. 학부위로 오십시오.
- * 문의 : 학생복지위원회(다향관 지하) 2260-3681 / 2276-1950

학생상담실 이용안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

- URP추천서 발급 : 미국방문시 비자발급을 위한 URP추천서 발급
 - 발급대상 : 어학연수, 기타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1년미만의 기간으로 미국방문시 대학 및 대학원을 Full Time으로 이수중인 학생,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학생(일반휴학자는 불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추천서 발급 : 병역미필자의 국외 어학연수 및 문화연수시 병무청에 제출하는 추천서 발급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상담 : 성희롱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상담
- * 2학기부터는 전화나 홈페이지 및 E-Mail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담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9월중 하는 일

- 학과 및 직업선택을 위한 인·적성검사 실시
- 직업에 대한 능력유형, 인성유형 그리고 선호경향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학부제 하에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는데는 물론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언제 : 9월 14일(화) ~ 9월 16일(목) 3일동안 매일 오후 3시
- 비용은 : 검사해석 및 상담은 무료입니다.
- 접수 : 검사실시 전일까지 학생상담실로 신청하십시오.(전화접수도 가능)
- * 본 검사는 매달 2~3회 실시되며, 월별 실시일정은 전월말 동대신문 및 본 상담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 홈페이지 http://sec.dongguk.ac.kr
- * E-Mail hsy@dgucc.dongguk.ac.kr

서울캠 학생상담실

조기졸업 신청

- 신청자격 : ①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99년 2학기 포함), ② 취득학점이 급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③ 6학기 또는 7학기 누계 평균점수가 4.0이상(F성적포함)이 될 수 있는 자로서, ④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
- 신청기한 : 9. 15(화) ~ 9. 16(목)
-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아간직좌는 야간강좌교학과)
- 제출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소정양식) 1부, 성적증명서 1부.
- 기타사항 : 가. 겨울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한지도 신청가능. 나. 편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음.

서울캠 교무처

이동병무 상담실 운영

99년 2학기 편입생 및 복학생, 재학생들을 위한 병무 상담과 학사정보 응모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동병무 상담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99. 9. 9(목)
- 장소 : 본관 취업 자료실
- 상담시간 : 10:00 ~ 15:00
- 상담요원 : 서울지방방무청 공보실 직원

서울캠 사무처

'2000학년도 모집단위' 관심 고조

학교와 학생회의 충분한 토론의 장 마련돼야



지난 2일 중운위위원들이 '2000학년도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회의하고 있는 모습.

오는 9월말 교육부로 올려질 2천 학년도 계열별 모집단위를 두고, 학교측과 학생회측과의 의견대립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교육부에 올린 모집 정원의 증·감, 학과폐지·신설, 대학 신설 등을 다룬 정일조장안은 지난 달 31일 확정발표 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계영(컴퓨터학) 교무처장은 "기존의 학부단위는 3~4개 학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최소소속단위는 학부가 되지만 계열별, 대학별 등 평역모집단위일 경우 학생들의 최소소속단위는 학과 또는 전공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단과대를 계열별로 모집해

3학기 이후 2학년 1학기말에 전공 선택에 들어가고, 전공교수별로 전공설명회를 갖는 등 학생 스스로가 학업지도교수를 신청해 1학기말에 전공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2학기 교육개혁 투쟁(이하 고개투) 입장을 안건으로 13명의 각 단체 및 자치기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섭·불교4 이하 중운위)가 열렸다.

이날 이상섭위원장은 "이교무처장과 면담을 거쳐 학교측이 교육부에 올린 계열별 모집안 공개를 요구했으나 교무처장은 행정체계의 한 과정이기도해 자료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또다시 학생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측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7월 전국 사립대학에서 문제시 되었던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고지와 관련해 "현재 우리 캠퍼스의 경우 기성회의 내부규약으로 인해 통합고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다음학기 학교측에서 내부규약을 무의미화 시키고, 통합고지 할 소지가 있어 기성회비의 자율납부를 보장"하는 투쟁을 벌일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위원장은 오는 10월 각 단체 및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고개투'와 학생회 하반기 진권식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학부제 도입이후 학제개편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고, 이번 학기 역시 내년도 계열별 모집안이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반복되는 학제개편논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회와 학교측과의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현실점에서 진정한 교육개혁이 무엇일 의미하는 것인가를 양 주체 모두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김미영 기자
dg19710273@mail.dongguk.ac.kr

증명서 발급기 설치

학사지원실(실장=차선구)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증명서 발급기 증명서 자동 발급기 설치로 인해 보다 수월해졌다.

학생회관 1층과 진흥관 1층에 설치된 증명서 자동 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며, 수료 증명서를 제외한 재학, 제적, 휴학, 졸업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용방법은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 5백원, 제적생과 졸업생의 경우 1천원의 수수료 투입후 주민등록번호 및 학번 입력시 국문 또는 영문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한 기기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각원, 참선 특강

정각원(원장=정성분·불교학)은 오는 11일부터 2개월간 정각원 법당에서 참선 및 요가 수련을 위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특강을 살펴보면 △강의내용-참선 및 요가의 기본자세, 호흡법 및 참선체조 등이며 △수강료-4만원 △강의시간-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20분까지 인데 접수는 정각원 또는 히말라야 선원에서 신청받는다.

한편, 과개사주지인 성우님을 법사로 오는 8일 오후 4시 2학기 교직원 개강법회를 개최한다.

총여, 함성지 제작

총여학생회(회장=전선희·국문4)는 오는 8일(수) 온방골 여학생들을 위한 '함성지'를 백상담에서 직접 나눠주고, 온방골 각 학생회 및 건물마다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2천부를 발간한 '함성지'는 주로 △여성의 성적 억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여성노동 권리의 이데올로기 비판 △가족의 변천사 △성폭력의 개념, 실태 및 가안 △온방골 수다방 △문화비평 △생리대 역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총여학생회에서는 온방골 3천 여학생들의 정서와 문화를 기반으로 여성의 자연스러움이 표출될 수 있는 '함성지'를 만들고자 지난 달 1일부터 간호학과를 비롯한 여학생 위주의 학과, 학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전선희 회장은 "이번 함성지 제작을 계기로 온방골 여학생들을 위한 기관지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업보육센터, 30일까지 입주업체 모집

지역경제활성과 고용창출기대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황운식·회계 이하 창업센터)에서는 완공예정인 10월 중순에 앞서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창업센터내 입주 예정일은 11월 1일이며,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일년 이내이다. (단, 재 계약시 1년 연장 가능) 또한, 입주자 부담금은 △보증금-평당 10만원 △관리비-실비기준 공공요금 및 장비사용료 △월 임대료-평당 5만원 △입주 기업체 요청에 의한 경영·기술 지원보증금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한 창업센터는 △문화산업=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지정분야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 상거래 분야 △생물산업=경주의 농·수산업과 식품·의약품산

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및 환경친화적 산업 등을 주력 보육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문화교육원, 제3기 입학식 개최

사회문화교육원(원장=임배근·경제학)은 지난 3일 제3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행사는 △동국홍보영화 상영 △학사보고 △부총장 인사 △원장 인사말 △학사안내 △스펙식 등으로 치러진 1부와 리셉션, 국악연주 등으로 치러진 2부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최규철부총장, 이갑득 기획처장 외 이원식경주시장 등 지역인사와 4백여명의 교육생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가을학기 개설교육과정을 보면 △정규과정= 컴퓨터와 인터넷, 투자경제교실, 가정항방요법을

이와 관련해 황운식 소장은 "많은 혜택이 주어질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롯한 10개과정 △세부과정= 국악 전공, 미술전공을 포함한 18개 과정 등이다.

정보검색실 주말개방

도서관(관장=이석장·영어영문학)은 주말에 정보검색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도서관 1층 정보검색실을 개방한다.

또한, 주말에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기기 분실 방지를 위한 컴퓨터 내에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했다.

제1회 수학기시대회 개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특례입학 혜택 부여

대구·경북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수학기시대회'가 본교 주관하에 오는 12일 오전 10시 본교 각 건물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시대회는 지역내 학생들을 평가하고, 2학년 대학 특례입시전형에 의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지난 1일까지 대외협력팀(팀장=황주환)과 포항 MBC지정 접수처에서 원서 배부 및 접수를 받았다.

당일 2차에 걸쳐 치러지는 시험 일정은 △시험시간=오전10시~11시 40분, 오후3시~4시 40분 △시험 자격=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학교장 추천을 받은자) △시험내용=학년별 1학기 학습범위(객관식), 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서술형 주관식 등이다.

단, 2차 응시자격은 1차응시자 중 상위 20% 합격자 선발 후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1차 합격자는 당일 오후 2시 정문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입상자발표는 오는 22일 포항 MBC 정규뉴스시간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본교 소강당II에서 갖는다.

시상 및 특점을 살펴보면 최우수상의 경우 본교 총장상과 본교 지원시 특례입학 혜택이 부여되며, 각 부분별로 포항 MBC사장상과 대구은행장상, 장원교육상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학기시대회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림스튜디오, 벤처 창업 동아리 선정

벤처 창업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본교에서는 동국투어라인에 이어 두 번째로 '드림스튜디오(대표=김재현·국제통상4)'가 지난 7월 2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99년 대학 지정 창업동아리로 선정됐다.

이번에 창단된 드림스튜디오는 방송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교내 방송국(국장=이연환·정보통신공학) 출신의 동우회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업분야는 △각종 홍보비디오 △주요문화 CD-ROM △프

리젠테이션 △2D, 3D애니메이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등이다.

현재 드림스튜디오는 경북 도청으로부터 5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상태이며, '가상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와 '전자관광시장 구축'사업 중 영상콘텐츠제작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중 홈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이며, 벤처창업보육센터 건물이 완공될 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다.

김희오교수

화합·저서출판 기념회

김희오(국제관계학) 교수의 화합을 맞이해 김희오 박사 화합기념에서 간행위원회(위원장=이철기·국제관계학)는 오는 10월 오후 6시 30분 경주공공도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출판기념 및 화합연회를 개최

닥치라구(?)

○... "007 짜장면을 사수하라!"

목적물에서는 교의 음식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철거방을 상자안에 넣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음식을 배달해 수위어제사와 한판 신경전을 벌이기도.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지저분한 음식을 뒤처리로 음식반입을 금할것에 음식점의 상술은 날로 높아가니. 이에 한 배달원 왈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묻지마... 다쳐!"



'비밀대회' 방중 설치된 학생회관 지하 휴게실 칸막이 사이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차희정 기자dg19711782@mail.dongguk.ac.kr

회전문대

빛바랜 L.T.

○...온방골 학생·자치기구 대다수가 L.T.건너뛰기를 기본으로하고, 마지막 바깥으로 다녀온 곳도 있었다는데. 반면 L.T.를 가지 않은 학생·자치기구, "꼭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반문하지만 그렇다고 사업 평가나 계획이 충실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집부들의 개인 사정 등등 변명이 거거서 거거라고.

이에 핑계에 지친 모 단체 회장 왈 "모든게 게으른 제 탓입니다."

화장실=끝없는 전쟁(?)

○... "분부 나와라. 여기는 온방골 학생회관 화장실. 또 터졌다. 화장지 지원 공급 차단다. 으윳"

"여기는 분부. 자취생 양체쪽들이 매번 휴지를 몰래 가져가 청소부에서 한달간 화장지 공급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오버"

"안됐지만 이로 인해 피해규모는 휴지질이 1대 파손과 피해자는 당산탈고도 수십명에 달하니 본부로 서도 더 이상 개성의지가 없다. 푸 푸푸푸, 연리두절"

"분부, 분부 그럼 화장실에 CCTV라도 설치해 달라. 오버".

닥치라구(?)

○... "007 짜장면을 사수하라!"

목적물에서는 교의 음식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철거방을 상자안에 넣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음식을 배달해 수위어제사와 한판 신경전을 벌이기도.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지저분한 음식을 뒤처리로 음식반입을 금할것에 음식점의 상술은 날로 높아가니. 이에 한 배달원 왈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묻지마... 다쳐!"

날아라 황금알

○...비야그라 코리아 21 (!?)

정부는 고이 품고있던 BK2이라는 황금알을 부화시켜 모두 하늘로 날려주었다는데.

중·하위권 여타 대학들의 특성화 분야는 고려되지 않은 채 SKY 대학의 힘부풀리기엔만 여념이 없었다고. 그렇게 한 곳에만 정력제를 쏟아 붓다가 머지않아 불거질 부작용이 우려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공짜로 얻어먹긴 글렀으니, 곧 시판되는 비야그라를 사먹으면 되겠네요!?"

외국어 특강

1.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오전	TOEIC KEY GRAMMER	TOEIC READING	TOEIC L/C	TOEIC READING
오후A	Free Talking & Discussion Class Intermediat·High Level(12~15명당정)			독해
오후B	독해	영어회화	독해	TOEIC L/C
오후C	독해	TOEIC L/C	영어회화	독해

2. 강의기간 : 1999년 9월 13일~1999년 10월 8일 (4주)

3. 강의시간 : 오전 8:00~8:50 (50분수업) / 오후 5:10~6:00 (50분수업)

4. 강의료

- *오전반 : ₩35,000
- *오후반 A : ₩40,000
- B, C : ₩35,000
- *TOEIC L/C : ₩15,000

5. 강의대상 : 학교 및 일반인

6. 강사 : 본교 영어회화 전담 외국어 교수 및 내국인 권위자

7. 접수기간: 1999년 9월 1일(수)~1999년 9월 9일(목)

8. 접수 및 문의처 : 원효관 3층 시청각 도서실 ☎770-2468

경주캠 외국어 교육원

단기 강좌 안내

여학생 실습실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9월 10일(금)까지
- 수강료 무료
- 접수장소 : 학생관 3층 여학생실
- 기타문의는 여학생실(770-2056)로 하세요.

강좌명	스포츠댄스	선물포장
강사	김도석 경주대학교 사회교육원 객원교수, 현역 댄스 스포츠 프로선수	박형욱 (사단법인 한국 플라워 디자인협회 영화꽃꽂이 지도장,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 수료
		(화)요일 (수)요일
날짜/강의내용	9.14-라틴댄스 차차차	9.15-낮은 상자 포장응용
	9.28-리듬댄스	9.29-긴 원통형 포장응용
	10.5-자이브	10.6-높은 사각형 포장응용
	10.12-왈츠	10.13-뚜개의 병포장
시간/장소	5:30~6:30 체육관 지하 유도장 예정	5:30~7:00 목야실
개인준비물	편한복장	30 Cm자, 연필, 가위
비고	선착순 납내커플 15쌍	

경주캠 여학생실

경주캠 벤처창업센터 입주업체모집

본센터에서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촉진을 위해 벤처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 입주신청자격 : 관련법령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또는 확인가능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및 생물 산업 등 세 분야의 창업 1년 이내인 기업
 - 나. 위 세 분야의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입주공간 및 공용통신라인, 전산망 제공
 - 공용장비 및 대학보유장비 제공
 - 경영·기술지도 및 컨설팅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벤처창업보육센터(우편접수 가능), 전화 : 0561-770-2472
 - 접수기간 : 1999년 9월 1일(수) - 1999년 9월 30일(목)
 - * 입주신청서 양식은 vbi.dongguk.ac.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입주신청서 파일이 저장된 디스크 1개를 제출하여야 함
 - * 본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검색하기 바람

경주캠 벤처창업 교육센터

99후반기 대학(군)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1학년 (00명), 2학년 (00명)
- 지원자격

4년제(1학년)	3년제(2학년)
· 1학기 성적이 매학기 C학점 이상자 · 77.10. 1 ~ 83.10. 1 출생자	· 대학성적이 매학기 C학점 이상자 · 77. 10. 1 ~ 83.10. 1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 1999년 9월11 일까지(학군단 행정실)
 - 나. 구비서류
- 선발절차 및 배점

지원시	신체검사시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 재정보증인 관계 서류 각1부 (인감증명서, 재방해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대입수능고사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복무연장 지원서 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천연색사진(4X5Cm) 3매
· 학생 종합생활기록부 사본1부	
· 면접평가 관련서류 각1부	·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 변적증명서 각1부	
- 가. 1차 : (수능 40% 대학성적 10%), 면접평가 20%, 체력검정 30%
나. 2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 합격자 발표 : '99. 12. 20
- 특 전
 - 가. 대학졸업시 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 나.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다. 정역시 직업보도 실시
 - 라. 대학 2학년초 학군사관 지원시 우대 (가산점 부여)
- * 문의처 : 동국대(경주)학군단 TEL) 770 - 2536 , 2537
- * 인터넷 주소 : www.armyofficer.co.kr

제 112 학군단 경주분단

동약로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학기중 공사



개강을 맞은 온방골. 두 달간의 긴 방학 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학생회관은 수 많은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학교가 많이 변했지?”라며 한 여학생이 웃으며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넨다. “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학교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

“그건 그렇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니까 적응이 안되는구나”라고 말하며 다른 여학생과 함께 학생들 틈속으로 사라진다.

방중에도 끊임없이 지속되던 학내 공사가 개강 후에도 학교 이곳 저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각원 수업을 받기 위해 소문동장을 지나치던 학생들이 진흙발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고, 한 쪽 스탠드에선 파헤쳐진 야구장을 바라보는 남학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본 하늘 아래엔 초록색의 철근과 그물망으로 쌓인 자연대 건물에 눈에 띈다. 수업을 받기 위해 높은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는 학우들과는 왠지 동떨어지는 듯한 소음이 자연대 건물을 맴돌고 있다.

원효관으로 향하는 길. 멀리서 바라본 원효관은 아름답기만하다. 점점 다가올수록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고, 공중전화통 앞은 북적거리다. 중정엔 낯선 글씨 한대가 들어와 있다. 보도블럭이 보이지 않는다. 흙으로 뒤덮인 중정 맞은편 행선실들과 휴게실은 거울처럼 깨끗하고 두꺼운 유리문으로 바뀌어있다.

학교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저기 새 건물이 들어서고, 증축되려하고 있다. 보수 공사 역시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 공사 소음을 동반한 수업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의 불만은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교측은 서로 계속된 입장차이만을 보여야하는 것일까?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노동자·민중의 정당 추구... 대중적 지지 확보가 급선무

‘1+α, α+1’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준비에 분주한 집권당의 모습에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피로 수혈해봤자 그게 어디 가겠느냐”는 정치불신 때문이다. 때마침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며 등장한 진보정당이 정치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진보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약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동’과 ‘국민승리 21’을 양대 세력으로 여러 사회 단체들이 참여, 진보정당은 상임대표로 국민승리 21 권영길 대표를 선출했으며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결정, △사회 복지예산 20% 확보 △재벌해체 특별법 제정 △근로자 및 군사비 삭감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결의했다.

진보정당은 몇번의 좌절의 역사를 겪은 바 있으며 노동운동의 고양, 사회주의의 진영의 몰락과 냉전해체 등으로 현 시기 진보정당의 창당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의 진보정당이 소수 상층인사의 주도로 건설되었던 반면, 현 진보정당은 민주노동, 전국빈민연합 등의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97년 ‘국민승리 21’의 대선 출마경험과 노동법 개정으로 부분적이나마 노조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등 진보정당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진보정당이 실질적으로 의식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선거구제’에서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민주노동당 창당 준비위원회 박용진 조직부장을 만나

“제도정당과는 개념부터 다르다”



박용진 조직부장

- 현시기에 진보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더이상 민중들에게 정리해고와 같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5·18 민주항쟁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혁의 물결을 민중이 이끌었고 민중이 해냈다. 그러한 민중의 중심점이 바로 진보정당이다. -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 ‘복합한 북조선 노동당, 남한은 민주노동당’ 이런 식으로 비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 정치판과 확연히 구별되는 정책, 인물 이것을 의미하는

적절한 당명이라고 생각한다. - 전국연합, 한국노동 등 많은 재야 단체들이 진보정당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데. = 모든 재야 운동 단체가 다 정당으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세력들은 연대해야 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은 노동자다. 따라서 많은 지지와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는 노동운동계 사람들이 1차 영입대상이고 80·90년대 학생운동 세력, 구 민주당 세력도 영입할 생각이다. - 국회의원회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을 목표로 신당창당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진보정당이 내거는 ‘민중을 위한 당’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



사진/한겨레신문

선거제도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좌절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된다. 국회의원회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정국을 6개 지역으로 분할 실시하는 것으로 고질적인 지역구주의 정치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 기반이 미약한 진보정당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동이 진보정당에 참여하였지만 기존 노동자들이 모두 진보정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정당과 달리 당대표, 당령, 강령등을 담원이 결정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후원금이 아닌 당원의 담비로 운영함으로써 재벌이 아닌 민중을 대변한다. 이는 진보정당의 강령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일, 교육 등에 대한 강령을 들 수 있다. ‘통일’

강령은 “OPLAN5027 북한 섬멸 작전 계획을 폐기시키고,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감축, 철수시킨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대북 통일 정책을 제시하고, 미·일·중 각국에 대한 통일목표를 확실히 갖고있다. 이는 ‘목적 없는 회유와 강경책’의 과거 정권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교육’ 강령에서 교육복지는 민중 삶의 복지를 강조하고, 교육정책에서 나타나는 계급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렇듯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지역주의와 보수일변도의 정치현실에 염증을 느낀 국민에게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등장, ‘진보 대 보수’의 양대 구도의 정치판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의 20% 확보와 군비축소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지역주의는 제도적 틀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더 부추기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전국통합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해야한다. - 내년 총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 우리 당이 당장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확실한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던 사람들에게 진보정당의 새로운 인물, 정책이 투표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 kjk10003@cakra.dongguk.ac.kr

언론비평

현대 추가조작사건으로 본 ‘재벌언론 문제점’

“재벌과 언론분리 아직도 멀었다”

대학언론인의 눈에 비친 기성언론은 어떤 모습일까? ‘옳은 것을 옳다하지 못하고, 그른것을 그르다 하지 못하는’ 오늘의 왜곡된 현실을 대학언론에서 파헤쳐 보고 싶합니다. 편집자

‘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록, 문화일보는 ‘출금’이라는 다소 순화된 용어를 사용했다. 더구나 이 기사 바로 밑에는 큰 활자로 ‘금융시장 혼조-주가 한때 900선 붕괴’라는 기사를 2단으로 실어 이번 추가조작사건을 증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지난 9월 2일 대부분의 신문들이 ‘현대그룹의 추가조작사건’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이번 ‘현대전자 추가조작’ 사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언론문제’까지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대그룹으로부터 독립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문화일보의 보도를 통해 ‘독립언론’의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검증할 수 있다.

지난 4월 금감위가 현대전자 추가조작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문화일보는 다른 신문과는 달리 사건을 축소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4월 9일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는 달리 경제면 2단으로 ‘현대중-상선 추가조작 혐의/금감원, 수사의뢰... 현대측 “사실과 다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 뿐이다. 이는 당시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1면 머릿기사로 다루며 대대적인 보도를 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이번 검찰의 이익회장 소환 관련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문화일보는 이 사건을 9월2일자 1면에 ‘현대증권회장등 10명 출금’이라는 제목의 2단 기사로 비교적 작게 처리했다. 제목도 다른 신문이 ‘이익회 현대증권회장 내주소환’(한국일보 1면 머릿기사), ‘현대증권 이익회장 내주소환’(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등 ‘소

같은 날 문화일보 3면에는 ‘이익회 쇼크’...주가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제목으로 주식시장의 파장에 대한 예측 기사를 머릿기사로 썼다. 이는 다른 신문들이 현대의 추가조작 의혹을 3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추가파장’은 박스기사로 처리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또한 같은 면에 실린 박스기사 ‘다음은 어디차례... 대기업 긴장’이라는 기사에서도 검찰의 이번 조사가 마치 ‘재벌 목줄죄기용’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했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특히 재계는 정부가 대기업그룹들에 대한 채적질을 해 내년 총선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관계자 말을 인용하였다. 문화일보에서 보여준 일련의 ‘축소보도’의혹은 재벌언론의 ‘독립선언’을 무색케 했다. 모기업에 대한 ‘경제적 분리’는 이뤄졌으나, ‘편집권 분리’는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 소유주에 의해 신문이면 내용이 좌우되는 현실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중요한 교훈이다. 현재 잠시 주춤하고 있는 ‘신문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부



나이 서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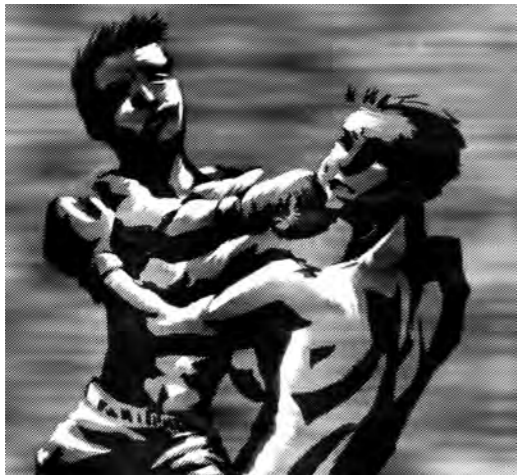
정치수배·구속...이제는 군대까지? 양심수는 비싼지만 하다. 양심수 군 문제해결을 위한 조계사농성단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연재소설 (1)

게론의 필통

글 이우상 그림 삼철공

뒤라고 불러야할까. K. 그, 새끼 소로스, 작은 강드쉬, 집령군 수색대장, 아무개, 최민수, 최수종, 차인표, 아니 최불암도 있지. 최불암이 나왔으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못나올게 없지. 그렇다면 상도동 어른이 섭섭하지. 생존인물인데, 역사의 뒷페이지에 달랑 붙어있어도 억울한데, 엄연한 실존, 당대 비평의 대상, 목청껏 소리칠 수 있는 울대와 짱짱한 박수부대가 있는데. 그럼 현직 선생님은? 아니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지. DJ라고, 음악을 마음대로 틀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자,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면 덜 떨어져도 한참 덜 떨어졌지. 선생님이란 백화점 손님에 불과한 단어라는 걸 모르는 문외한이야. 그건 치한, 무뢰한, 약한, 파렴치한과 동의어야. 정의한이란 생소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만화에 서밖에 본적이 없지. 요즘 만화에서는 물론 볼 수 없는 고전에서는나.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면 덜 떨어져도 한참 덜 떨어졌지.

선생님! 그 이름 만으로도 가슴 벅잡니다. 선생님!-이미자 노래-, 섬마을 선생님-이것 역시 이미자 노래-, 검사와 여선생, 여긴 약간 근엄미가 풍긴다. 왜? 일단 검사라는 말이 틀어졌으니까. 옛장수와 여선생, 하숙집 주인과 여선

고 제대로 알아서 하는 걸 본적 없는데, 국가라는 근엄한 업체도 알아서 하는 걸 본적이 없는데.

그나저나 역시 현직이 좋은거네. 선생님이란 한 단어가 질기네. 당연하지. 현직의 어드벤처이지, 현직의 즐거움, 현직의 부가가치가 일반대. 현직만 좋아하면 섭섭해질 위인들이 많지. 저멀리는 단군 할아버지-이것도 단군 오빠라 부를라. 권우 작녀, 연오랑 세오녀, 광개토, 김유신, 이순신, 세종, 이완용, 전태일, 박노해(아마 그때 관할했던 박노해는 이미 죽었을걸). 전태일역을 그렇게 열었던 000-개는 최근에 죽었을꺼야. 이런걸 요절, 아쉬운 결별이라고 하나. 그림을 생각해 내는데 3시간이 걸렸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전태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그 역할과 얼굴은 어떻게 선연한데 그 역할을 맡았던 개의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다. 남자셋 여자셋에 나오는 개 말이야. 왕초에 나오는 개 말이야. 어휴 죽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의 혹은 한 전기자의 역할과, 장인정신의 소멸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한다. 전태일 환련에만 출연하고 장렬히 산화했다 라면, 많이 양보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정도 두편에만 출연했다면 우리는 관습은 짧은 연기자를 가진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변신도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잘 먹고, 더잘 싸고, 더잘, 더잘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잠시 망각하는 고통에 놓이게 된다. 흥경인, 이제 생각났네. 세 시간만에. 불행한 연애인. 불행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청와대 세입자도 불행하지. 선생님이란 칭호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DJ라는 호칭에는 희극미가 첨가되어 있지않다. 희극미를 함유하지 못한 자는 불행하다.

이승만은 관심에서 멀리 밀쳐져 있고 박정희 앞에서는 미소라도 띄면 국가보안법이 눈알 부라리고 있었고 최규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역시 난놈은 전두환이지. 지금까지 사오정의 사촌 형님으로 견제하고 있으니까. 노태우는 틈새 시장에서 그저 단물이 약간 있었고 가깝게는 그 래도 영생이가 행복하지. 제주도들 국제적인 강간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외치는 그 단모음화된 포효 하나만으로도 작품감이었니까.

GMO 먹거리 문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변형, 전환)농산물(GMO/GEO=Genetically Modified/ Engineered Organism)의 지구 생태계 및 인체에의 위해성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강력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않는 옥수수, 수퍼연어, 무르지 않는 토마토, 보통 미꾸라지의 20배에 달하는 수퍼미꾸라지, 토감(Pomato), 수퍼딸기 등이 모두 유전자 재조합 즉 유전자변형 또는 전환 생물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21세기 지구상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변형식품들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자연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오랫동안 인체가 안전하게 적응된 상태인데 반해 유전자 변형식품은 사람의 체내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재조합식품이 사람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독소가 발생하고 알레르기가 생키며 각종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등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다. 우선 종, 계통이 다른 유전자 전환과정에서 도입유전자가 기존의 유전자배열과 달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알레르기를 인체에 발생하게 한다던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미생물을 유전자도입과정에 사용하여 독성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믿지 못할 경우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70%이상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GMO 식품의 인체에의 위해성보다는 지구 생태계과과 측면에서 더욱 우려된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일부 학자들도 있다. GMO 식품에 있어서 국가간 국민의 체질이 다르고 또 검사기준이 기존 자연식품과 같기 때문에 그 결과는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으나 수입국에서 보완 검사과정을 통과하면 인체의 안전성 문

달하나 천강에

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태계는 이와 다르다. 생물의 진화는 수천년 내지 수만년이 지나야 달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GMO 생물은 진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생물종의 진화과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도 변형시킨 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다른 식물에 전이될 경우 어떤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잡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등 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GMO 식품의 경우 멘델의 법칙에 4세대를 번식시키면 고유의 유전형질이 완전히 소멸되어 생물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몇 개의 식물만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제초제 저항성 벼를 비롯하여 혈압강화 토마토와 역병저항성 고추 등 8개작물 19종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신품종이 개발되어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류가 기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GMO 식품을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김경재 생지대 식물자원학과 교수

마당 99 - 과천세계공연예술제

연극·음악 등 종합예술축제로 발돋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Back to NATURE, Toward the FUTURE, Into CULTURE' 라는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과천시에서 열리는 '마당99 - 과천 세계공연예술제'.

97년 '세계마당극잔치'가 세계연극제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올해 3회를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행시명을 '마당99 - 과천 세계공연예술제'로 바꾸어 '마당극'에 국한하지 않고 연극, 퍼포먼스, 음악, 무용등 장르를 다양화하여 공연할 예정.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적 관람·놀이·휴식의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의 홍보를 담당할 김현정씨는 "새로운 2천년을 맞아 종합적 예술적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마당99'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린 공간에서 시민과 예술인들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할 수 있죠"라며 많은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연 역시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상업성을 배제하여 '양들의 방황' '나타99' '내우서커스'를 제외하고는 무료이지만 어린이극, 성인극, 가족극 등 각 공연에 연령제한을 두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꾀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은 축제의 질적향상을 위해 개방성, 보편성, 작품성, 다양성, 축제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해외초청작과 국내초청작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영·호남 연극인의 날, 어린이·청소년의 날, 경기도의 밤, 부모님을 위한 전통의 날이 있어 그날에 맞는 공연이 치러진다. 이번 공연을 통해 타지역 축제와는 차별된 '종합예술축제의 장 과천시'로 이미지를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국제행사로 정례화되길 기대한다. (영) sadad@cakra.dongguk.ac.kr

99 강원국제 관광엑스포

아름다운 경치·지구촌 관광정보 한눈에

오는 11일부터 50일 동안

93 대전엑스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이벤트, '99강원 국제관광엑스포'가 오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일대에서 열린다.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57개국 72개 지방정부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21세기 세계각국의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

리가 될 것이다. 본교동문인 김진선씨가 도지사로 애쓰고 있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관광상품을 알리는 '주제관'을 비롯, 지구촌 관광문화를 최첨단 영상과 전시조형물로 소개하는 '우정관' '국제1관' '국제2관' 첨단관광산업의 현장을 보여주는 '기업관' 등이 상설 운영되며 매일 엑스포 마당놀이와 청초호 수상영상쇼, 거리퍼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이번 엑스포는 21세기 미래산업인 관광사업을 우리나라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아울러 한국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매체비평

-광고편

성(性)과 광고

"성적 표현의 자유는

여권의 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0억정도의 지출로 3백억 이상의 마케팅효과를 본 소프트콤바우 광고는 회심의 만루홈런을 얻어냈다.

성과 광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에서 섹스는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 광고에서는 프로이드의 심리처럼 완전히 성의 지배하에 우리 생활이 놓여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제품에 따라서 성적인 접근이 더욱 효과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몇 년 전 주병진씨가 자기 팬티광고에 직접 출연해서 웃을 뱉었다고 한 적이 있었다. 3번에 걸친 시리즈였는데 첫날은 웃도리, 둘째날은 바지, 그리고 마지막엔 팬티를 벗고 정면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사건으로 중심을 가린 광고를 내보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이 광고는 아주 유명한 유럽광고의 패러디이다. 그 유럽광고에서도 셋째날에 벗긴 벗었는데 뒷모습을 보여줘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런 경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을 도구로 이용했다면 구체적으로 제품에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향수광고나 화장품광고가 많은데 에스데로데광고가 대표적이다. '마술에 걸린(SPELLBOUND)' 이것이 이 광고 카피의 전부이다. 그러나 광고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촉촉한 눈매와 선정적인 입술로 남성을 유혹하고 있는 모델의 얼굴에선 성적유혹이 지면 가늠하기

우고 있다. 어떤 남성도 그 여자를 외면할 것 못할 것이다! 바로 그 향수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빙과류같은 식품에서 중의적 느낌을 주는 광고 카피를 많이 사용한다.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광고카피다.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이제는 더욱 노골적인 표현을 한다. '살살 물려먹는... 벗겨먹는 맛' 등등. 가전제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커지고 세지고! 봉세탁기' '앞에서 뒤에서, 앞 뒤 00냉장고'

최근에 소프트콤바우라는 소주가 남성의 누드 광고로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동서양에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성적 접근 광고가 이토록 오래도록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는가? 광고 집행자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섹스를 건드려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소프트의 경우 광고비는 고작 10억정도 지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광고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각종 뉴스, 신문 등 안 다뤄진 매체가 없을 정도인데 이것을 광고비로 환산하면 3백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입장에선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얻은 것이다. 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보면 회심의 만루홈런인 것이다.

그런데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아마도 그 광고를 성군과 유림들께서 보셨다면 이 나라가 말할 정조라고 개탄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윤리, 또는 성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서 항상 변하는 것이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유럽에서는 광고를 섹스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니 너무 흔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광고의 경우 각종 매체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성적 가치관이 많이 관대해졌음을 읽을 수 있다. 즉 광고를 비난하는 내용보다는 기발하다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동양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이제와 유교의 깊은 질곡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성적 자유, 또는 성적 표현의 자유는 여권의 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교의 성리학이 기세를 부리던 시절의 여인들의 인권은 어떠한가? 또한 이슬람교의 여성들은 어떠한가? 두 경우 모두 성적 표현은 죄악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아닌가? 성적 표현이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여성의 지위가 높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상도 많이 변했다. 광고도 이 변화에 앞서거나 뒤쳐거나 하면서 더욱 대담한 표현을 시도할 것이다.

김태홍
서울광고기획국장



90년대, 대학문화는 과연 대중문화와 차별을 갖는가. 본사 문화부는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총 3회의 기획을 마련했다.

1. 대학문화의 모습
2. 대학문화의 정체성
3. 대학문화의 대안찾기

첫회 대학문화의 모습에서는 70년대, 80년대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던 대학가 문화의 모습을 두루 살펴보고 아울러 90년대 현재 본교의 학생들이 함유하고 있는 문화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변치않는 대학문화의 모습

저항성·진보성·공동체성 ... 90년대 '뒷풀이 문화'

90년대 들어 대학문화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중문화와 변별성을 찾기 힘든 대학가의 문화를 두고 혹자는 '대학문화는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대학문화는 죽었을까.

90년대말 서울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라는 화두로 지난 3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총학생회, 사법대학생회, 야간강좌 총학생회 등 학생회 문화국장들을 비롯 교직원위원, 동국 포스트 등 언론사가 참석한 이 자리는 대학문화에 대한 정답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대학문화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동악내 대학문화의 현황은 어떠한가 △동악내 문화운동의 한계 △대학문화운동의 실천적 접근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동악내 대학문화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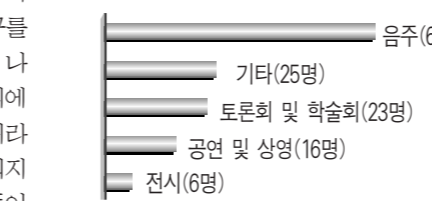
좌담회의 기초자료는 동연이 사전에 동아리 소속 학생 1백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생활 및 대학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동악내 문화는

'술문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생들은 '뒷풀이 문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결과는 본교가 명동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을 배제하더라도 학내의 공연문화나 축제문화의 미흡함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 뒷풀이 자리에서 '음주'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관계의 확대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밝혀 이러한 뒷풀이 문화도 공동체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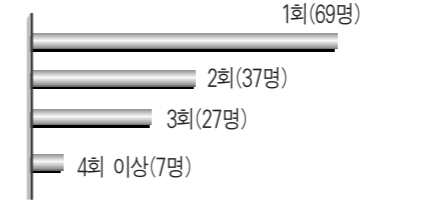
비록 본교 학생들이 다양성을 표현하려는 욕구도 적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다양성과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은 대학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옳지 않으며 대중문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폐해, 지나치게 소비지향적인 대중문화를 비판해 가면서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논의를 나누었다. 문화부

동연 설문조사 결과 및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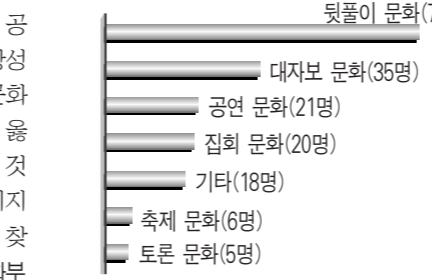
◇ 학내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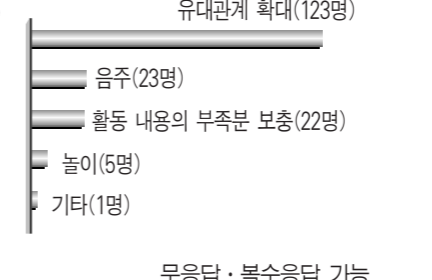
◇ 뒷풀이는 일주일에 몇회?



◇ 음악의 특징적인 대학문화는?



◇ 뒷풀이의 기능은?



무응답·복수응답 가능

70년대 청년문화의 발흥과 낭만적 한계



유신과 긴급조치의 군사 독재 속에서 한국의 70년대 대학문화는 검열로써의 유신문화, 저항으로써의 청년문화, 상업화로써의 대중문화가 함께 뒤섞인 문화적 모순의 복합적 형태 속에서 서구의 자유주의 대중문화와 민족문화의 복원을 꿈꾸는 공동체문화가 두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니스커트와 청바지, 통기타, 장발 등 서구문화는 70년대 청년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대학문화의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매김되었다. 당시 대학문화 중에 새로운 현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제문화'였는데, 이 속에서 공식적인 쌍쌍파티는 서구 청년들의 파티문화의 한 변종으로 암울한 일상의 억압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과 함께 카니발에 통기타 음악과 디스코 등의 새로운 문화형식이 들어왔다.

또 다른 한축으로 대학가에서는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71년 서울대의 민족가면극 연구회를 필두로 각 대학마다 사물놀이나 탈춤운동이 가시화되었다. 여기에는 서구문화의 대량 유입에 저항해 민족정신을 복원하려는 취지도

있었지만, 이보다도 집단적인 공동체 문화 공연의 장을 통해 지배 계급을 통렬히 풍자하고, 유신정권에 대해 상징적인 저항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대학가의 민족문화 부흥운동은 운동권 문화의 효시가 됐으며, 대학문화가 정치적 투쟁의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75년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장례식을 하나의 문화제로 기획하면서 그 자리를 유신정권 타도를 위한 집회 장소로 삼은 것이 좋은 예이다.

70년대 대학문화는 문화적 공황의 시기 혹은 암울한 검열문화의 시기 속에서 나름대로 청년문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갔다. 물론 당시의 청년문화가 서구 문화 자본의 대량 유입의 위협을 안고 있었으며, 저항의 방식도 낭만적인 한풀이나 퇴폐적인 패배주의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자본주의의 대량성을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풍자와 상징, 암시와 은유를 통해 유신정권에 저항하며 청년 대학문화가 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부

80년대 이념과 정치적 투쟁의 시위문화



광주를 짓밟고 들어선 5공화국의 출현으로 시작된 80년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억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운 권력의 탄압에 대해 민중의 저항은 거리에서의 직접적인 시위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청년 학생들이 있었고, 이로써 80년대 청년대학문화는 '시위문화'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되었다.

이와 같은 시위문화는 70년대 대학내의 전통문화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공동체문화를 직접적인 운동의 무기로 사용했다. 서울대 등 몇몇 대학에만 있던 탈춤과 사물놀이와 관련한 문화 동아리들이 각 대학으로 퍼져 나갔다. 이처럼 전통문화의 집단성에서 출발한 공동체문화는 좀더 조직화되면서 집단적인 정치적 세력화를 목표로 한 80년대 학생운동의 시대적 정서를 적절히 반영했다.

따라서 대학문화운동은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를 찬미하는 상업적 대중문화와는 되도록 멀지 않으려 했으며, 대중문화는 결코 대학문화와 함께 무대에 설 수 없는 적대적 대상이었다. 공동체문

화의 강조와 대중문화에 대한 철저한 거부는 80년대 대학문화의 비판지점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대학문화 조직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87년 이후였다. 6월항쟁으로 민주적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전에 진보세력 중심으로만 공유되었던 민중문화와 노동계급문화가 표면으로 부상하면서 대중적인 인기와 공간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다. 대학문화 운동 역시 나름대로 정착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 이외의 다양한 문화형식에 대한 고민 부재와 특히 NL과 PD로 구별되는 학생운동내의 정치적 노선에 따른 갈등으로 학내 활동에서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80년대 말 민중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88올림픽이후의 소비대중문화의 급격한 확산, 특히 그 주체를 대학생들로 상징하면서 대학문화운동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90년대 신세대 담론을 필두로 한 소비대중문화의 팽창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문화부

메아리

한국을 삼시다

▲ '인생은 도박과 같다'는 말이 있다. 흥망성쇠를 두루 지나쳐가는 인생의 역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즐거움과 슬픔을 교대로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흥망성쇠의 인생사가 부처님 손안의 작은 불무림이라면 인간이 어떤 자선로 살아가야 옳은가를 반문해 본다. 인간의 기여할 길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부질없는 세상에 실망할 것이며, 삶에

대한 창의적인 노력도 포기하고 말 것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투자를 통해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막대한 돈을 벌지만 투자기업이 망하면 그 주식은 휴지 조각으로 변한다.

이처럼 주식은 우리에게 흥망성쇠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부여한다. 하지만 흥망성쇠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다면 자본

주의 뜻인 주식은 시들해질 것이며, 그 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 요사이 주식으로 인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증가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주가폭락으로 반생명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한 사건을 비롯하여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가정파탄의 소식이 연일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투자에 실패한 한 투자

자가 증권회사에서 권총을 사람들에게 무차별 난사하고 본인은 자살 하는 등 무자실체로 인한 악영향이 개인과 가정에 두루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국가 경제를 살리자며 1인 1주식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증권이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다 들쭉날쭉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Buy Korea, 한국경제를 확신합니다"란 수

수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문구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국가경제 파탄과 주식폭락으로 인한 살인, 그리고 애국심을 불법으로 조작한 현대증권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법정 최고형을 부여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다.

박양우 학술부장
dg19711437@mail.dongguk.ac.kr

자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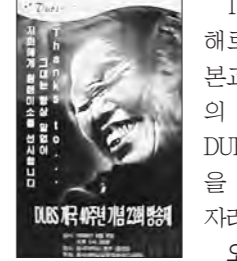
학교안에서

한소리 가을정기공연



1999년 9월 10일 8시 장소: 동국대학교 관악관

Thanks to...



본교 서울캠 본관 중앙당에서. 문의 2260-8502~3

Live in Dongguk Baramil



본교 경주캠 소강당 1에서. 오는 9월 10일 오후 5시 30분.

학교 밖에서

모색



오는 8~12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우리의 화가 박수근

평생을 낙목처럼 살다 간 화가 박수근(1914~1965)의 독창적이고 탁월한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회고전. 유화, 수채화, 스케치를 비롯, 최초로 공개되는 삽화 등 총 1백2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민족의 화가'이자 '서민의 화가'로 인정받은 박수근 화가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 오는 10일까지(월요일 휴관). 호원갤러리에서. 문의 771-2381~2

소나기

비아그라



△내 남자친구에게 먹일 생각임... 효험이 끝내주면 다음에 알려줘요.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가축들이 더 오래 살겠군~
 △나는 남아돈다.
 △참 좋습니다.
 △비관하지 말고 아저들이 무작정 그것을 위해 라이스 햄버거를 먹어라.
 △비~아그라를 먹으면
 아~침에
 그~늘이
 라~라라

△비~아그라가 봄에 좋다고
 아~아~얍
 그~렁지
 라~그라자!
 △정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
 △그런 약 살돈 있으면 보약이나 먹여라
 △조매씩 무라
 △한국형 비아그라 개발성공.
 상품명:일라그라
 △넘치는 힘 주체할 수 없다.
 △여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긴급수배
 죄명: '일라그라 밀수'
 그 효과에 감탄~소나기
 △비아그라라 니 까불지 말그라
 △늘어봐 니들도 다 먹는다
 △아그들이 라면먹듯 먹는다
 △나 20대에 대머리 됐다
 △꼭 저게 필요합니까? 난 자연스러운게 좋던데...

△최고의 정력제-뱀(비아)이
 비아그라(비아)보다 어휘변경!!
 △아직은 슬만한데...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정력제, 일내그라
 △늦둥이 많이 생기겠네...
 △아직 젊는데, 뿔~
 △비아그라 많이 무그라
 △진짜 비아그라를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TEL : 22603491-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dgpress
 나우누리 PC ID:동대신문
 천리안 PC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김치볶음(1300)	순살돈가스(1500)
화	짜장밥(1300)	돈육푼고추찌개(1300)
수	오징어볶음(1500)	고구마별미밥(1300)
목	탕수육백반(1500)	만두육개장(1300)
금	비빔밥(1300)	오므라이스(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만두탕수(1300)	해물탕짜개(3000)
화	제육김치덮밥(1300)	버섯전골(3000)
수	참치회덮밥(1500)	한치회덮밥(1300)
목	불고기덮밥(1500)	대구지리(3300)
금	순이채볶음(1300)	철판볶음밥(3000)
토	새우볶음밥(1300)	만두전골(3300)
일	마파도말(1300)	보리발정식(3000)
금	오징어덮밥(1300)	따로국밥(3300)
금	돈육김치찌개(1300)	오징어순대(3500)

(단위:원)

만해광장은 전 동국인의 것

공부하다가 지친 몸과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에는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것이 최고다. 깨끗한 운동 시설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러움을 가졌었다. 하지만 우리 대학 학생들은 희미한 가로등 아래 콘크리트 바다에서 농구하는 것을 언제나 탈피할까 늘 안타까워했다. 이런 안타까움에 만해광장을 보다 나은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새 학기가 시작해 바뀐 만해광장을 보고 학생들이 탄성을 지르는 것을 상상하며 시설관리팀에서는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공정 조건과 일기불순으로 당초의 예상보다 3주 가량 늦게 준공되어 추석 전후에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대학생 수준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효율적인 75분 강의제 실시돼야

75분 수업만이 효율적인 수업방식? 방학내내 조용히 잠을 자던 온방골이 개강과 함께 학생들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물론 개강이 되면 학교도 변화하는 것이 많지만 특히 강의실에서 느끼는 것이 75분제 강의이다. 아직은 정상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75분 강의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75분 강의제도는 99학년 2학기에 온방골의 새로운 수업제도가 되었다. 그 중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양선택과목인데 교양선택과목은 수업시간의 숫자만 바뀌었지 지난 학기의 3시간 연강과 다름이 없다. 이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수업시간 활용과 효율성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난 학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교과과정, 교양필수의 시간배정에도 75분

행동과 기물과괴를 보았을 때,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꾸준한 인내심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학교당국의 노력은 이제 결실을 맺어 최근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시설물 파괴도 많이 줄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해광장은 총학생회도, 품물때도, 아마추어 농구회의 전용도 아닌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동국인의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사나 집회는 사전에 일이고 좁더 조심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해광장 만큼은 정말로 많은 학생과 교수님들이 어우러져 즐겁고 활기차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설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재삼 부탁을 하고 싶고 시설관리팀에서는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소홀함 없이 시설보완을 꾸준히 할 예정이다.

김계현(사무처 시설관리팀)

강의제도가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전공교과만이 2시간과 1시간의 수업방식에서 2번의 75분 수업으로 바뀌어 75분 강의제라는 것을 흉내만 내는 듯하다. 그리고, 일부 강사가 담당하던 전공과목은 3시간을 연강으로 수업한다. 이렇게 75분 강의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명분만 앞세운 이 제도가 어떻게 온방골의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수업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는 문제점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제 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서 훌륭한 학사제도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75분 강의제의 목적인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박우택(관광경영학부 2)

“토론열기 가득한 강의실 꿈꾼다”

지난 30일 개강 첫날, 나는 여성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교수님의 질문이 있었고, 학생들의 방학 동안의 이야기라든지 하는 그런 자유 발표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기색이 없었으며, 질문에 대한 간단한 반응, 이렇다면 '네, 아니오' 등의 그런 단순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거의 없어 수업하시는 교수님께서 함들어 하시는 듯 보였다.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위한 주입식 교육방법에 익숙한 나로서는 그런 발표식, 토론식 수업에 잘 적응이 안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그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수업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이시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견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내가 만약 교수님의 입장이라면 참으로 답답할 것 같다. 그 흔한 '네, 아니오'

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넓은 강의실에서 관객을 상대로 수업이란 연극의 대사를 독백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다.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인공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지겹지만 한 수업이 나로 인해 진행되어 가고 즐겁다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정지영(관광경영학부 1)



망중한... 개강의 번잡함이 가라앉은 2주째, 일상의 리듬을 빨리 되찾아야겠다. 부주한 도심속의 휴식공간이 고미운 듯, 다정한 두사람의 뒷모습에서 내일을 위한 다짐이 들린다. 촬영=김주환 교수

모니터링

제 1276호 동대신문을 읽고

‘면밀한 분석’ 부족

제 1276호 동대신문 5면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주의의 요철이다'라는 제목의 논단을 읽고 소감을 밝히려려 한다. 내용전체에서 받은 느낌은 순수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는 간절한 여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라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러나 이 글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배경, 한국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속에서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현실, 6.25도발을 부채질했던 사변전 남포당의 지하활동상황, 북한의 대남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주장을 전개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더라도 위의 논단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사상

을 논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오봉 (행정대학원 제8기 관리학과정 인동우체국장)

‘도서관 외부인’ 열린글터를 읽고...

이 기사의 핵심은 '지역밀착형 대학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제로 요약된다. 그러나 지역밀착이 도서관 외부인(?) 개방과 같이 외부인과 내부인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에 한하여는 내부인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남아도는 좌석이 있다면 같이 나눠 쓰자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측의 주장대로 '환동해권의 거점대학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사회의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를 이루려면 일단 '내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시키고 방음시설등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인에 대한 무조건 출입이나 무조건 제한은 반대한다. 이들에 대한 출입증 제작이나 신분증의 발급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출입 제한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출입증 발급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한다. 그러나 교육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의 공급자가 턱나고 좋은 교육을 준다면 흔쾌히 같이 나눠가지자 할테지만 부족하게 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측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한 조각의 빵을 나눠 먹는 것보다 두 조각의 빵을 하나씩 나누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 내가 많이 먹고(양질의 교육을 받고) 강해져야 남을 이길 수 있음을 잊지말자. 김명환 (knh1378@hanmail.net)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9월 4일 쏘, 강 언니 생일 축하해요. -국어교육과 99

△생자경의 구자경 13개월만의 귀국을 축하축하!
 △수학교육과 1학년 이쁜 형주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름 모를 선배
 △지훈야, 한얼야 복학 축하한다. -불교대 일동
 △경철행정 배재! 생일 축하한다.
 △내사랑 재원이 22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니 애인 경이
 △세민이와 권식이의 100일을 많이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풍사리 소현이와 희식 50일을 조금만 축하한다. -98경·통 미진과 현선
 △98회계 태영이와 화영이, 유은이, 승희의 복학을 축하축하한다. -98농기가

△추가 추가!! 중앙일보 동국대 특파원 '컴공 심영호' 수고하셨습니다

△KART 여러분 방학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94 기계 환
 △미술학부 '갤러리오픈전' 준비하느라 수고했어오. 9월 6일부터 2주동안 문화관 전시실로 오세요. -해피한 미술학부 파이팅

열심히 합시다

△말자야 받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먹는거야. 힘내!! -수령스이런
 △사회부 조직강화했다. 국교과의 중심되자! 투쟁!
 △법대 LIBERAL 학우 여러분, 2학기에 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파이팅 합시다. -주석
 △미리내 2700학우 여러분 2학기 즐겁게 살아 갑시다!! -15대 아총 회장
 △사과계열 편입생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매직이나 타롯 좋아하시는 분 자랑 같이 해요. -현
 -컬정 99반재영 011-9595-2577
 △일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1년동안 괴롭혀서 미안.
 △팍팍 열심히 해라. 니 뒤에는 내가 있다. -젯소
 △정요상·전선희 드디어 수업 듣다. 감격! 감격! -탈박
 △석현야 사랑해!!

은망글
축하합니다

△이제 수명이 되었습니다. 나의 기다림에도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메바
 △9월 3일은 재친구 아영이 귀빠진 날이구요. 9월 10일은 재친구 아영이랑 중심이 100일 이거든요. 축하해 정말! △효권야! 너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세교

항상 바쁘단 핑계로 신경써주지 못했는데 미안해. 넌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미역국도 꼭먹구. -현

△99년에 솔로되신분 축하합니다. 우리 모여서 솔로예찬 한 번 합시다. 수고하세요. △순화야. 힘내. 그리고 사랑해.

열심히 합시다

△철학과 99학번들. 2학기에 도 열심히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황성동에 와서 먹지만 말고 청소도 해라. 이 자식들이~△석영스, 새준스, 선산스, 동화스가 잘 지내자고 말하고 싶당! 2학기 짝있게, 금장 화이팅!
 △외국어문학부 김진을! 힘내. 네결연 항상 내가 있잖아.

-Your Lover

그리고...

△동국문화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두부된장국(1300)	김치만두전골(1300)
화	쇠고기무국(1300)	미역냉국(1300)
수	아욱국(1300)	제육김치찌개(1300)
목	복어채국(1300)	쇠고기살국(1300)
금	오징어무국(1300)	콩나물냉국(1300)
토	유부된장국(1300)	쇠고기덮밥(1700)
일	근대국(1300)	김치볶음밥(1600)

(단위:원)